

# 01

## 나와 세계

- 1 여러 감각을 활용하여 주변 대상과 현상을 지각할 수 있다.
- 2 미적 감수성을 발휘하여 대상을 관찰하고 탐색하며 나아가 그 가치를 찾을 수 있다.
- 3 자신을 성찰하고 주변 환경, 타인과의 관계를 고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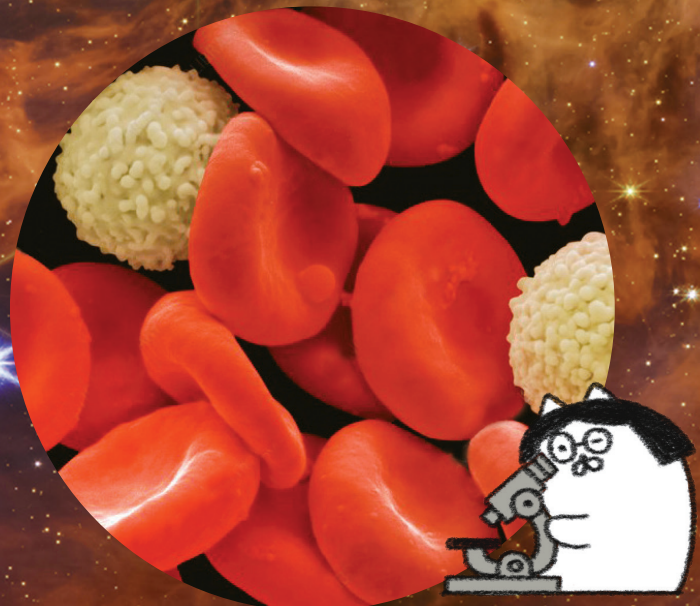


“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세상을 지각한다.  
보기, 냄새 맡기, 듣기,  
느끼기, 그리고 때로는  
도구를 이용하기!  
”



▲ 제임스 웹 망원경으로 촬영한 우주  
미국 항공 우주국(NASA)이 2022년에 배포한 사진이다.  
천문을 관측하는 용도로 설계된 제임스 웹 망원경으로  
우주의 한 부분을 포착하였다.

시야를 넓히는 도구를 활용하여 멀리 있는 풍경이나 거대한 우주의 모습뿐만 아니라 미생물과 바이러스 등 사람의 눈으로 지각할 수 없는 대상을 볼 수 있다.



▲ 현미경으로 관찰한 백혈구의 모습



▲ 제주 성산일출봉(대한민국)



▲ 앤틸로프 캐니언(Antelope Canyon, 미국)

### 아름다움을 찾아서!

미술 활동은 주변 환경을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고 아름다움을 느끼는 경험에서 시작한다. 나를 둘러싼 자연환경이나 일상에서 볼 수 있는 대상을 관찰하고 그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보자.

▼ 사바(Sahba, Fariborz/캐나다/1948~ ) 연꽃 사원(인도/건축물/1986년) 깨달음과 순수를 상징하는 연꽃 모양으로 지은 종교 건축물이다. 위에서 내려다 본 사원의 모습은 연꽃과 닮도록 건축하였다.



▲ 라이트(Wright, Frank Lloyd/미국/1867~1959) 구겐하임 미술관(뉴욕/건축물/1959년) 자연에서 발견할 수 있는 나선 형태를 건축물에 응용하여 제작하였다. 아래에서 올려다 본 구겐하임 미술관의 천장 또한 나선의 형태를 띤다.





## 온몸으로 느끼는 세상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과 같은 다양한 감각은 세계를 접하는 직접적 창구이다. 우리는 여러 감각을 이용해 대상을 동시에 지각하며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인지한다. 감각을 열고 주변 대상을 오롯이 느껴 보자.



▲ 감각에 집중하여 주변 사물을 탐색해 보자. 매끄러운 조약돌, 거친 나무껍질, 나뭇잎의 까끌까끌한 잎맥을 만질 때 어떤 감각이 느껴지는가?

▲ 라이프(Laib, Wolfgang/독일/1950~) 헤이즐넛 꽃가루(설치 작품/가변 크기/2021년) 꽃가루를 채취한 뒤 이를 전시장 바닥에 체로 쳐서 작품을 연출하였다. 꽃가루의 색채와 향기를 전시장에서 느낄 수 있다.



## 집중하여 관찰하기

한 가지 대상에 집중하여 자세히 관찰하면 주변에 있는 것이 사라지고 지각하는 대상만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관심이 가는 대상을 자세히 관찰하며 대상이 지닌 특성을 면밀히 들여다보자.



▲ 이명호(한국/1975~) 나무 #2(사진/128×108cm/2007년) 나무 뒤에 흰색 천을 두고 사진을 촬영하여 나무에 시선을 집중시킨다.



무심코 지나쳤던 것을 자세히 관찰하니 새롭게 보이네!



## 확장되는 환경

환경은 우리를 둘러싼 자연적 조건과 사회적 상황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환경이 지닌 조건에 따라 감각하고 지각하는 대상이 달라지며 인식과 사고도 이에 영향을 받는다. 인간은 과거에 주로 자연환경에 둘러싸여 살아왔지만 현대에 들어서며 대부분 인공 환경으로 이루어진 세상에서 생활한다. 앞으로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 살게 될까?



▲ 영화 투모로우랜드(2015년)의 한 장면

◀ 팀랩(teamLab/국제 예술 집단) 꽃과 사람, 제어할 수 없지만 함께 살다(인터랙티브 디지털 설치/가변 크기/2020~2021년) 기술을 활용하여 환경에서 느끼는 감각을 체험할 수 있다. 미디어 아트는 각종 영상과 공간을 바탕으로 감각이 느껴지는 신비로운 환경을 조성한다. 우리는 미디어로 연출한 공간을 거닐면서 움직임을 보고, 소리를 듣고, 냄새를 맡는 등 색다른 환경을 경험한다.

## 표현 활동

### 감각을 회화로 표현하기

#### 표현 재료

노트, 펜, 채색 도구

- 1 내가 느꼈던 여러 가지 강렬한 감각을 적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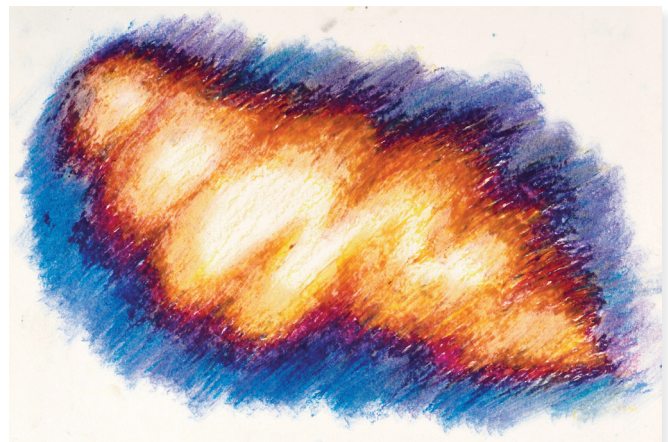
- 2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은 감각을 골라 다양하게 표현해 본다.



- 3 그림을 함께 감상하며 어떤 감각을 그렸는지 친구와 맞춰 보고, 어떻게 표현했는지 설명한다.



◀ 한지호(학생 작품) 바다의 변화(오일 파스텔/21×29.7cm) 가족과 함께 떠난 휴가에서 느낀 파도의 온도와 촉감을 푸른색과 녹색의 줄무늬 형태로 표현하였다.



▲ 최광은(학생 작품) 무제(오일 파스텔/21×29.7cm) 사탕 안에 들어 있는 시럽을 먹을 때의 미각과 촉감을 푸른 색감과 붉고 노란 색감으로 대조하고 부드러운 형태의 덩어리를 이용하여 나타내었다.

## 나의 내면 탐색하기

나는 나 자신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나는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고유한 존재이다. 미술을 활용하여 스스로를 들여다보고 나의 내면과 만나 보자.

## 나와 만나기

나는 평소 어디에 관심을 두는가? 나의 고유한 특징은 무엇인가? 나와 관련한 내용을 적어 보고 나를 나 자신으로 만드는 것에는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자.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살펴보자.



▲ 조민교(학생 작품)  
나, 마인드맵(종이에 사인펜, 색연필/27×39cm)

## 나를 표현하기

무엇으로 나를 설명할 수 있을까? 나의 성격, 특징, 습관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해 보자.



▲ 김형진(학생 작품) 편안함의 바다(색연필/21×29.7cm)



▲ 칼로(Kahlo, Frida/멕시코/1907~1954) 상처 입은 사슴(섬유판에 유채/30×22cm/1946년) 자신의 고립감과 고통을 상처 입은 사슴에 빗대어 표현한 자화상이다. 18세에 겪은 끔찍한 교통사고로 평생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작가에게 예술은 자신을 표현하고 치유받는 구원과 같았다.



▲ 앙소르(Ansoor, James/벨기에/1860~1949) 가면에 둘러싸인 앙소르(캔버스에 유채/120×80cm/1899년) 다양한 가면을 쓴 인물들이 작가를 둘러싸고 있다. 그러나 작품에서 유일하게 가면을 쓰지 않은 작가는 과연 그의 본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었다고 할 수 있을까?



## 다양한 나의 모습

학교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낼 때의 나, 학교 밖의 나, 부모님이나 선생님과 대화하는 나, 인터넷 세상에서의 나는 조금씩 다른 모습이다. 내가 보여 주고 싶은 나, 내가 되고 싶은 나, 내가 싫어하는 나의 모습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 김지우 외 180명(학생 작품) 자화상 포토 존(가면 모형에 자유 재료/180×100×60cm) 다양한 모습의 '나'를 표현한 학생 단체 작품이다. '나'를 상징하는 오브제인 가면들을 모아 만들었다. 포토 존에 서면 다양한 개성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인 느낌을 받게 된다.



두 사람은 마주 보며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 관계 속에서 피어나는 너와 나

우리는 주변 대상과 여러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다. 가족, 친구,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자주 사용하는 물건, 입는 옷, 지내는 공간에서도 특정한 정서를 느끼거나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자신과 연결된 다양한 대상을 미술 작품으로 표현하며 나와 세상에 대한 이해를 넓혀 보자.



▲ 리비에르(Riviere, Briton/영국/1840~1920) **공감**(캔버스에 유채/45.1×37.5cm/1878년) 반려동물과 느끼는 유대감을 그림으로 표현하였다.



▲ **아브라모비치**(Abramović, Marina/세르비아/1946~ ) **예술가는 여기 있다**(퍼포먼스/700시간/2009년) 예술가가 전시장에 마련된 의자에 앉아 있으면 관람객은 맞은편 의자에 앉아 예술가와 눈을 마주친다. 일상적 상황을 미술관에서 연출하여 관람객은 사람과 사람 간 관계를 새롭게 인식하게 된다.

내가 주로 사용하는 물건이 나를 표현해 주기도 해.



▲ **오인환**(한국/1965~ ) **우정의 물건**(사진/각 115.6×77.5cm/2000~2008년) 작가와 친구의 집에서 똑같은 물건을 찾아 같은 구도로 배치하여 사진을 찍었다.



▲ **이안나**(학생 작품) **애착 물건 자화상**(색연필, 리본 핀/21×29.7cm) 자화상을 그린 뒤 내가 좋아하고 애착이 가는 물건을 그림과 함께 배치하여 사진을 촬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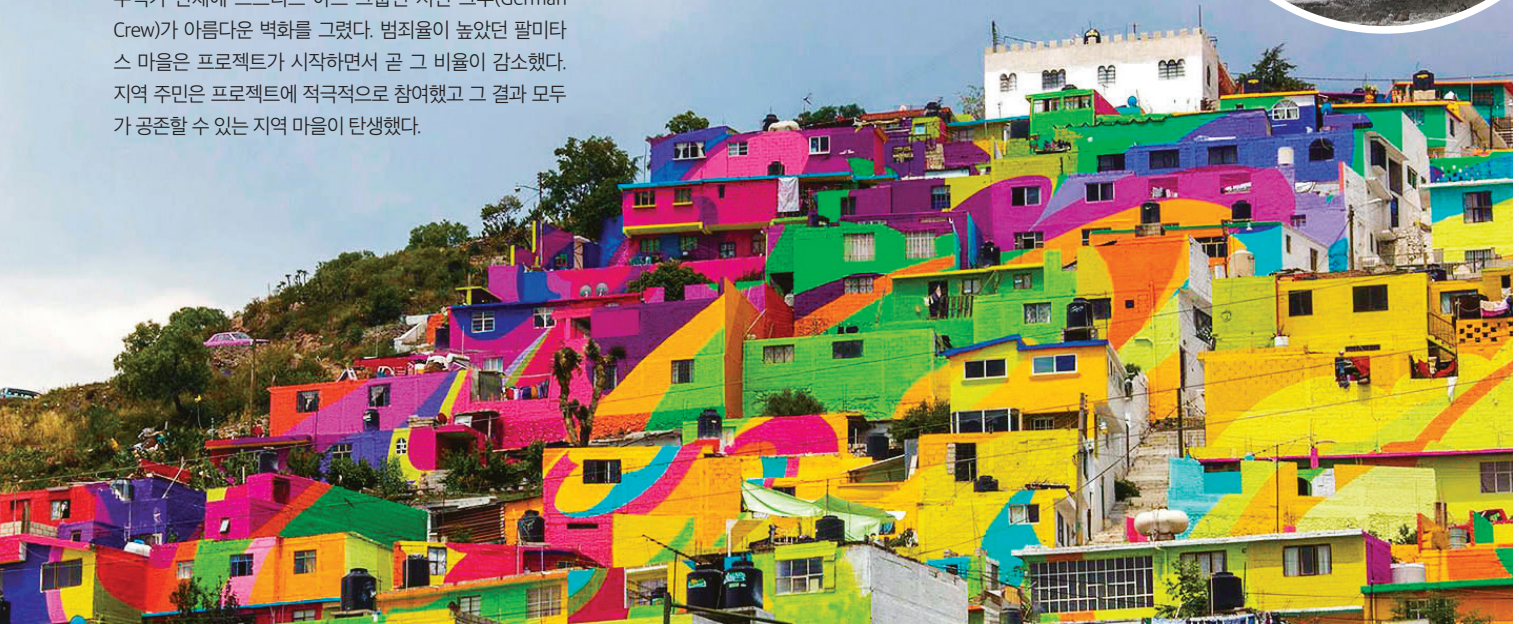
## 공동체의 일부인 나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가족, 학교, 사회, 국가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상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내 생각을 전달하고 공감하는 수단으로 글과 말을 주로 사용하지만, 때로는 시각 이미지로 글과 말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다.

시각 이미지로 마을이 새롭게 태어났군!



저먼 크루(German Crew) 파추카 페인트 잇셀프 프로젝트(멕시코/2014~2015년) 멕시코 파추카시에 있는 팔미타스 주택가 전체에 스트리트 아트 그룹인 저먼 크루(German Crew)가 아름다운 벽화를 그렸다. 범죠흐이 높았던 팔미타스 마을은 프로젝트가 시작하면서 곧 그 비율이 감소했다. 지역 주민은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그 결과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지역 마을이 탄생했다.



▲ 강예희, 하보미, 우진, 여애양(학생 작품)  
추모의 바다(캔버스에 아크릴/40×40cm)

▶ 백남준(한국→미국/1932~2006) 굿모닝 미스터 오웰(비디오/60분/1984년/2014년 백남준아트센터 전시 장면) 1984년 1월 1일, 백남준은 당대의 예술가, 팝 가수들이 위성으로 만나 함께 공연하도록 기획했다. 뉴욕의 WNET 텔레비전 스튜디오와 파리의 퐁피두센터를 위성으로 연결했고 한국, 일본, 독일 등에 공연을 생중계했다. 전 세계 시청자 수는 약 2,500만 명으로 추산되었다. 당시 공연을 2014년에 전시한 백남준아트센터의 모습이다.



함께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공감 능력이 아닐까?



◀ 이중섭(한국/1916~1956) 화가와 가족(종이에 펜, 크레용/26.4×20cm/1954년) 턱을 맞던 네 명의 가족을 그리는 화가의 모습은 멀리 떨어져 지내는 그들을 그리워한 이중섭의 마음을 잘 나타낸다.



☞ **표현 재료**

시트지, 마스크 테이프, 카메라

- 1 주변 공간을 둘러보고 인상 깊은 장소나 나에게 중요한 공간을 탐색하여 사진을 촬영한다.
- 2 공간을 새롭게 재해석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촬영한 사진에 특정한 주제나 재미있는 패턴을 그려 공간 재해석 아이디어를 구체화한다.



- 3 색 시트지와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공간을 꾸민다.



- 4 친구들의 작품과 내 작품을 비교하며 각자가 학교 공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재해석하였는지 의견을 들어 본다.



▲ 김우솔, 이성민, 김민준, 이지은(학생 작품)  
스파이더맨의 흔적(테이프, 시트지/가변 크기)



◀ 김민서, 김혜리  
(학생 작품) 소방관의 하루(테이프, 시트지/가변 크기)

▼ 유환준, 한지호, 전승민(학생 작품) 물결(시트지/가변 크기)



- 주변 대상과 현상을 여러 감각을 활용하여 지각할 수 있는가?
- 대상을 관찰하고 탐색하여 그 미적 가치를 새롭게 창작 활동에 표현할 수 있는가?
- 자신을 성찰하고 주변 환경, 타인과의 관계를 고찰할 수 있는가?

꽃을 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어디에나 꽃이 피어 있다.

- 마티스 -